

역학			번호: J - B - 17							
제 목	국문	수인성/식품매개질환 표준역학조사서의 활용 실태								
	영문	Application of the standard epidemiologic survey form for the waterborne and foodborne disease surveillance								
저자 및 소속	국문	김정규 ¹⁾ , 손혜숙 ²⁾ , 이종태 ²⁾ , 전진호 ²⁾ 1)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및 2)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							
	영문	Jeng Kyu Kim ¹⁾ , Hae Sook Sohn ²⁾ , Jong Tae Lee ²⁾ , Jin Ho Chun ²⁾ 1) Busan Metropolitan City,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Division, 2)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Inje University								
분야	역학	발표자		발표형식	포스터					
진행상황	연구완료									
목적 : 전염병 유행시 감염원을 파악하고, 유행을 종식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용 중인 표준역학조사서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.										
방법 : 첫째 부산지역 16개 보건소의 전염병 방역업무 담당자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, 설문내용에는 일반적 특성, 표준역학조사서의 사용여부 및 내용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. 둘째 2000년 5월에 집단 세균성이질 발생 시 역학조사에서 직접 사용된 표준역학조사서 636건의 문항별 기재율을 관찰하였다.										
결과 : 32명의 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담당자의 68.7%가 표준역학조사서의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, 그들 중 90.9%가 양식이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았다. 표준역학조사서의 내용에 관한 의견으로 90.6%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, 수정되어야 할 문제점으로는 '문항이 많다'(84.3%), '내용이 복잡하다'(75.0%), '질문이 어렵다'(65.6%), '불필요한 문항이 있다'(62.5%) 등이 지적되었다. 실제 사용된 표준역학조사서의 기재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감염원조사 항목에서(0.3% ~ 20.1%) 매우 낮았다.										
고찰 : 표준역학조사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표준역학조사서의 양식에 대한 보완. 수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, 역학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역학조사서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역시 필요할 것이다.										